

체첸에서 폭력의 전개와 그 관계적 요인

김 태 연*

- 개요 -

이 글의 목적은 국가·국가 하위·비국가 행위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체첸에서 폭력이 발발하고 전개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분쟁 해결을 위한 엘친과 두다예프 간 적절한 관계 형성의 실패는 1차 체첸전 발발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사실상’ 체첸이 독립했던 1차전 이후 시기에는 체첸 안팎에서 폭력이 중단되었지만, 마스하도프 정부의 체첸 안정화 실패와 이에 따른 러시아와 체첸 간 관계 형성 시도의 무산은 2차 체첸전이라는 새로운 폭력의 발발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푸틴의 전쟁과 체첸화 정책의 동시적 수행은 위계적 연방관계의 틀 내에서 체첸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계적 해법의 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체첸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폭력이 체첸 내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체첸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분산·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 전개의 새로운 양상은 푸틴과 람잔 카디로프 간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 제 어: 러시아, 체첸, 러시아-체첸 관계, 폭력, 북카프카스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서론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85개 단위들 중 하나인 체첸 공화국에서¹⁾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전쟁이 발발했고, 이 두 체첸전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수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 체첸전은 흔히 체첸 주민 혹은 반군의 분리·독립 운동과 이를 저지하려 한 러시아의 반작용적인 움직임이 충돌한 결과로 빚어진 유혈분쟁으로 설명된다. 특히 2차 체첸전은 이슬람주의 테러리즘의 발흥과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연관된 전쟁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체첸은 아직까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북카프카스 지역 폭력의 진앙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체첸에서의 분쟁 혹은 전쟁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비록 그 현상과 배경과 원인의 규명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체첸에서 폭력이 전개되고 그 양상이 변화하는 다면적·역동적 과정과 그 과정에 작용한 관계적 요인을 온전하게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혹은 사회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러시아 중앙정부와 체첸 정부의 협력·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체첸 내부 상황이 ‘정상화’되어감에 따라 체첸에서 폭력이 정치적 제어의 대상으로 변주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 기존 연구에서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지 않다.³⁾

- 1) 1993년 12월 채택된 러시아 헌법에 열거된 연방 구성주체는 89개였으나, 2005~2008년 일부 연방 구성단위들이 통폐합되면서 그 수가 83개로 줄어들었다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연방시(市)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단위로 편입되어 현재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수는 85개가 되었다. 85개 러시아연방 구성단위들 가운데 22개는 공화국의 지위를 갖는데, 광의적·지리적 의미의 북카프카스 지역에는 체첸 공화국을 포함하여 8개 공화국이 위치해 있다.
- 2) 사상자 규모나 거주 지역 파괴 정도에 있어서 두 차례의 체첸전은 1991~1994년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발발한 일련의 분리·독립 전쟁, 1992~1997년 타지키스탄에서 벌어진 내전, 2014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을 능가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이다(Halbach 2018: 6).
- 3) 이는 국외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변화된 체첸의 현실, 그 요인과 영향과 의미 등을 분석한 연구물이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점과 크게 대조된다. 예를 들면 Дубнов(2016), Малашенко(2009), Halbach(2018), Matejova(2013), Ratelle

이 글은, 체첸에서 극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분출되기도 했지만 소강 혹은 내연(內燃)의 상태에 접어들기도 한 폭력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고, 국가 행위자, 국가 하위(sub-state) 행위자, 비국가(non-state) 행위자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 간에 형성된 혹은 의도된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폭력의 변천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관계적 요인이 폭력의 전개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폭력은 무엇보다도 그 당사자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정치집단 간의 폭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 혹은 요구하지만(혹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 혹은 요구하지만) 그 충족이 좌절된 집단(들)이 그로 인한 불만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많다. 바꾸어 말하면, 갈등은 그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전개되는지에 따라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형성 및 그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은 갈등이 폭력으로 전화(轉化)·표출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다른 사회현상처럼 폭력의 발발 또한 주로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뉘어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⁴⁾ 관계는 구조적 조건이 부여하는 기회 혹은 제약 속에서 행위자들의 태도와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관계는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중간 층위에서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계를 면밀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관계는 구조와 행위자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도출해낸 산물로 환원·설명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의 관계

and Souleimanov(2016), Russell(2007, 2008, 2011), Sakwa(2010, 2013), Schaefer(2010), Šmíd and Mareš(2015), Souleimanov(2015), Ware(2009, 2011) 참조.

- 4) 국가 내부 분쟁 혹은 폭력에 관한 최근의 양적 비교연구는 그 주요 발발 요인으로 ① 낮은 경제발전 수준 ② 국가 약화 혹은 붕괴 ③ 반군의 자원 존재 ④ 과거의 분쟁 경험 ⑤ 비대칭적 민족(ethnic) 구성 ⑥ 산악 지형 등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동향을 보인다(Zürcher 2007: 4-5, 43-57). 이는 폭력 발발 과정에 미치는 행위자 요인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작아져라기보다는 양적 연구가 그 속성상 통계적 측정·분석·비교가 가능하거나 이에 용이한 구조적 변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적 요인에 대한 고찰은 폭력의 발발과 전개에 관한 구조 중심적 설명과 행위자 중심적 설명을 보완해주는 혹은 매개해주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관계는 그 속성상 유동성 혹은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폭력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의 설명에 적합한 변수라고 하겠다. 보통 폭력은 상시적 상태가 아니라 행위자들 간 관계의 특정 국면에서 발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관계가 변함에 따라 폭력의 성격과 방향과 강도가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그 지속과 중단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즉 관계는 폭력의 발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 변동 과정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체첸에서 폭력이 여러 국면을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것은 체첸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열망이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려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달라진 상황의 반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체첸에서의 폭력의 전개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이 관계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어 체첸에서 폭력이 발현된 흐름을 설명하려 한다고 해서 관계적 요인이 체첸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전개된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혹은 유일한 변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수의 기존연구물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체첸 분쟁은 역사적·구조적 조건, 정치·경제·사회현실과 그 변동, 이념적·종교적·민족적·문화적 요인,⁵⁾ 행위자의 이해관계나 전략적 선택⁶⁾ 등 다양한 계기와 동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연구물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체첸 분쟁의 현상, 배경, 원인, 영향 등을 다각도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⁷⁾ 체첸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그 양상이 변화한 역동적 과정 및 다면적 성격을 관계의 문제와 연관시켜 고찰

5)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물이 대체로 역사적 조건, 정치·경제적 변수, 종교·문화 요인 등이 결합하여 작용한 결과로 체첸 분쟁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정세진(2005), 현승수(2011), 홍완석(2005), Тишков(2001), Evangelista(2002), Lieven(1998), Russell(2007), Schaefer(2010) 참조.

6) 체첸 문제의 행위자 요인에 주목한 연구물로는 김태연(2012), Дубнов(2016), Малашенко(2009), Halbach(2018), Russell(2008, 2011) 참조.

7) 최근에는 폭력이 체첸에서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분산·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공간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Holland *et al.*(2017), O'Loughlin and Witmer(2011, 2012), O'Loughlin *et al.*(2011) 참조.

하고 있지는 않다.⁸⁾ 따라서 이 글은 기존연구에서 조명받지 못한 연구대상인 체첸에서의 폭력의 전개에 작용한 관계적 요인을 전착한다는 점, 그럼으로써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이 폭력 혹은 분쟁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소비에트 말기~1996: 폭력의 발발과 관계 형성의 실패

체첸에서 폭력이 전개되는 과정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다양한 정치·사회·민족적 불만과 요구의 표출이 가능해진 소비에트 말기의 상황에서 발단한다. 소비에트 중앙권력이 이완되고 자유화의 물결이 거세어져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1990년 11월 당시 체첸-인구쉬 자치공화국(Чечено-Ингушская АССР) 수도 그로즈니(Грозный)에서 체첸인의 민족적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체첸인전민족대회(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гресс чеченского народа)가 개최되고, 체첸인으로는 처음으로 소련군 장성 직에 오른 두다예프(Джохар Дудаев)가 민족대회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다. 두다예프의 주도로 민족대회는 당시 합법적 권력기구였던 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사실상 독립을 의미하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의 주권선언을 발표하도록 압박함으로써(김인성 2009: 159-160; Zürcher 2007: 77) 제정·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 역사적 불만을 품고 있던 체첸인의⁹⁾ 민족적 열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¹⁰⁾

8) 러시아 민군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2차 체첸전 발발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물로는 서춘식(2003) 참조. 이 연구물은 러시아 내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된 과정을 논의한 반면에, 이 글은 러시아와 체첸 정부 및 관련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첸 안팎에서의 폭력의 통시적 전개를 고찰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연구물과 이 글은 연구대상의 시공간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9) 러시아-체첸 분쟁의 배경을 논의하는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물이 체첸인이 러시아에 대해 원한의 감정을 갖게 되는 반목과 길항의 역사적 과정과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정세진(2005), 홍완석(2005: 240-243), Evangelista(2002: 12-15), Lieven(1998: 303-323), Russell(2007: 29-52), Sokirianskaia(2008: 104-108) 참조.

10) 소비에트 말기에 연방 내 여러 민족들이 역사적 불만과 민족적 열망을 표출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영토와 민족의 권리를 결부시킨 소비에트 민족 제도(ethnic institution)의 영향 또한 매우 컸는데, 소비에트 연방제 구성 원칙의 하나이기도 했던 이러한 민족의 영토화 혹은

한편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선에 반대하는 보수 쿠데타가 발발하자 두다예프는 그로즈니에서 반(反)쿠데타 집회를 조직하여 공화국 권력을 접수하고는 여세를 몰아 체첸 대선을 실시하여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체첸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에 같은 해 11월 당시 러시아공화국(РСОФСР) 대통령 옐친은 체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여 체첸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지만, 러시아 의회가 옐친의 결정을 무효화하여 가까스로 폭력사태가 빚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두다예프의 체첸은 1992년 3월 러시아와의 연방조약 체결을, 1993년 12월 러시아연방 총선 및 헌법 국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러자 결국 1994년 12월 옐친이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두다예프 정권을 전복시키고 체첸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Russell 2007: 72-74) 대규모 군사행동을 단행하면서 1차 체첸전이 시작된다.¹¹⁾

20개월 이상 지속된 1차 체첸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러시아 군인 4,000~7,500명, 체첸 전사 3,000~15,000명, 민간인 약 40,000~120,000명으로 추산될 정도로(Dunlop 2000; Zürcher 2007: 99-100) 이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다. 특히 러시아 군과 안보기관이 체첸 민간인 사이에서 반군을 가려내기 위해 설치한 소위 ‘여과캠프(filtration camp)’가 구타와 고문으로 악명 높았다는 점은 1차전 시기에 폭력이 러시아 국가기구에 의해 체계적이면서도 일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폭력이 러시아 측에 의해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95년 6월 스타브로폴 변경(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부도놉스크(Будённовск) 시에서 체첸 반군이 병원을 장악하여 인질사태를 벌이면서 민간인만 100명 이상 사망했다.

소비에트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러시아와 체첸 간의 갈등이 1994년 전쟁의 발발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관계적 요인은 당시 러시아와 체첸의 최고 지도자 옐친과 두다예프 간의¹²⁾ 불신과 적대

제도화가 소비에트 말기 민족주의 운동의 분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태연(2015: 57-59) 참조.

11) 또한 1996년 여름으로 예정된 대선에서 옐친이 전쟁의 수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의도했고 크렘린 내에서 ‘매파(hawks)’가 권력투쟁에 가담했다는 러시아 국내정치적 요인이 갑작스런 개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논의되기도 한다(Zürcher 2007: 81).

의 누적, 다시 말하면 폭력의 분출을 막기 위한 관계 형성의 실패이다. 소연방 해체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미노 효과에 의한 러시아연방 해체의 위험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과¹³⁾ 1990년대 초 체첸의 석유 매장량이나 정제량이 러시아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Zürcher 2007: 72, 114),¹⁴⁾ 1994년 1차 체첸전이 일어나는 데 미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이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다예프에 대한 옐친의 태도는, 1992~1994년 사이에 옐친이 카프카스 지역을 적어도 다섯 차례나 방문하여 여가를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다예프와 대화를 나눌 시간은 할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입증된다(Evangelista 2002: 23). 러시아와 체첸 고위 실무진 선에서는 양측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상당 정도 진전되고, 두다예프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옐친에게 화해·협력의 제안과 서신 또한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 간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주원인은 바로 두다예프에 대해 옐친이 취한 비타협적인 태도에 있으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옐친 스스로 1차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Тишков 2001: 223-225; Evangelista 2002: 11, 23-28).¹⁵⁾ 옐친이 체첸 문제

12) 1994년 당시 러시아인도 체첸인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수의 평범한 체첸인은 전쟁을 두려워했다는 점에서(Lieven 1998: 68; Russell 2007: 70), 러시아와 체첸 간 폭력적 충돌의 기점은 양측 대중 사이가 아니라 양측 정치 엘리트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13) 예를 들면 1994년 2월 러시아연방은 체첸에 버금가는 거센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던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권한 분할에 관한 이른바 쌍무조약을 체결하고는 이를 모델로 하여 여러 다른 지방정부의 원심력적인 움직임을 제어해 나가기 시작한다(김인성 2007: 176).

14) 1993년 체첸의 연간 석유 생산량은 1980년대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 전체 산유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같은 해 체첸의 석유 제품 생산량 또한 1991년의 1/10 이하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Zürcher 2007: 72, 114).

15) 당시 옐친 정부 내에서 매파가 주장한 강경론이 체첸 문제의 폭력적 해결 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정부 내에 강경파만 포진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들을 등용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역시 옐친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매파의 강경론이 옐친의 결심을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옐친의 의사를 반영한 의견 제시였다는 해석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설령 매파의 압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사력 사용 결정에 대해 국가 최고 군수권자로서 옐친의 최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애초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거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오로지 전쟁의 수행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옐친이 거듭해서 두다예프와의 접촉 및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스스로는 자신이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갈등의 평화적 해결책을 배제한 채 체첸 문제를 해결하려 한 셈이 되었고, 이러한 접근법이 두다예프 정권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적 문제 해결의 시도로 귀착되는 것은 말하자면 시간문제였다.

물론 관계란 상호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어서 옐친이 두다예프를 이해하거나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다예프에게도 일정한 몫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체첸 대통령으로서 가진 첫 TV 연설에서부터 두다예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인공지진을 일으켜 체첸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증적인 비난을 가했는데, 이러한 가상의 위협은 이후 수년간 체첸인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Lieven 1998: 67) 작지 않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1차전 개전 직전의 절박한 시간에 러시아에 화해를 제의하기 위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흥분하여 수차례나 러시아를 ‘악의 세력(satanic power)’이라고 일컫거나 TV 연설에서 옐친을 ‘살인자 궤단의 지도자’라고 부르는 등 두다예프가 러시아와 옐친에 대해 내놓은 많은 발언과 태도는 확실히 비외교적이고 모욕적인 것이었다(Lieven 1998: 68-69). 두다예프가 이러한 입장을 나타낸 이유와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¹⁶⁾ 그의 지지자들도 인정하듯이 그의 여러 도발적인 발언과 수사는 옐친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Evangelista 2002: 25).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연방 해체 이후 옐친은 러시아의 영토적 통일성 유지라는, 두다예프는 체첸의 독립적 지위 획득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목적과 열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긴장관계에 놓여 있던 두 지도자 모두 상대방을 대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 양보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16) 카자흐스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오랜 기간을 소비에트 군에서 복무한 두다예프가 처음에는 체첸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체첸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체첸에서 그의 지지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해 그가 극도로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논의되기도 하고(Lieven 1998: 66, 69), 그가 오로지 옐친과 개인적으로만, 오로지 러시아가 체첸의 독립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만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Тишков 2001: 224)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거친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전달하고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언사나 입장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는 신뢰와 이해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적대의 감정과 태도가 형성된다. 즉 분쟁의 주요 당사자 간에 평화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호이해 및 협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체제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사회정치적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탈공산주의 이행 초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자 간 관계 맺기의 실패, 즉 분쟁의 정치적 해법 모색의 좌절은 갈등의 폭력적 분출을 야기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III. 1996~1999: 폭력의 중단과 관계 형성 시도의 무산

1차 체첸전은 1996년 8월 다게스탄(Дагестан) 공화국 하사부르트(Хасавюрт)에서 러시아와 체첸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종결된다.¹⁷⁾ 체첸의 분리·독립 인정 여부, 즉 체첸의 정치적 지위 결정이 핵심 이슈였던 전쟁을 마무리 짓는 협정의 주요 내용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5년간 유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1차전은 체첸 측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러시아와 체첸 간에 폭력은 멈추어졌고, 이후 체첸은 ‘사실상(de facto)’ 독립국이 되었다.¹⁸⁾ 이에 따라 체첸에서 경제재건 및 국가기능 정상화를 위한 독자적인 시도가 가능했던 이 시기는 이후 체첸 자체의 발전 경로나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다.

체첸의 국가건설 과정은 1997년 1월 체첸 대선에서 체첸 주민 다수(59.3%)와 러시아의 지지를 받은 온건파 체첸인 지도자 마스하도프(Аслан Масхадов)가 체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본격화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차전 종전 이후 1999년 8월 2차전이 개전될 때까지 마스하도프 집권기의 체

17) 예상과 달리 러시아 군이 1차 체첸전에서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이는 오히려 대선을 앞둔 옐친의 지지율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옐친은 전쟁 종단을 대신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재선에 성공한 직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18) 혹은 이 시기 “체첸 주권의 실질적인 인정은” 1990년대 러시아에서 나타났던 “분할된 지역주의(segmented regionalism)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다”고 논의된다 (Sakwa 2010: 603-604).

첸은 전형적인 ‘실패국가(failed state)’였다고 논의될 정도로(Sokirianskaia 2014: 93-95; Zürcher 2007: 86) 정치·경제·사회적 안정화 및 국가기능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다.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한 경제적 조건에서 통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활성화된 지하경제 및 범죄 활동, 마스하도프의 포섭 시도와 양보에도 불구하고 체첸 내 반정부 군사 지도자들이 전개한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저항,¹⁹⁾ 1차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첸 사회에 침투·확산된 이슬람주의 세력이(Sagramoso 2012: 573-574) 정권에 대해 제기한 사회정치적 요구와 압박 등으로 인해(Sokirianskaia 2008: 120-124; Sokirianskaia 2014: 97-106; Zürcher 2007: 90-91) 마스하도프 정부의 국가건설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1차전과 2차전 사이 시기에 혼란했던 체첸의 사회정치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체첸 대통령 마스하도프는 1차전을 거치면서 이슬람주의 세력과 결합하는 독립적인 체첸 내 군사 지도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력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1999년 2월 마스하도프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샤리아 통치의 도입이라는 과감한 양보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히려 반정부·이슬람주의 세력이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예를 들면 바사예프 등이 마스하도프는 친러 성향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그가 샤리아 법을 채택한 것은 마지못한 혹은 위선적·정치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의미를 폄하하면서 바사예프 자신을 수반으로 하는 대안적인 이슬람 통치기구를 설립하기까지 한 것이다(Evangelista 2002: 57-58; Sokirianskaia 2014: 111-112). 이처럼 마스하도프의 정치적 양보 및 포용 시도에도 불구하고 체첸 내 군사 지도자들이 마스하도프 정부에 대해 비타협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의 체첸 국가건설·경제재건·사회 안정화 시도는 결국 좌절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차 체첸전의 발발이 마스하도프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집권기에 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체첸 내부 갈등의 폭력적 발현, 즉 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의 노력과 행

19) 그 대표적인 예로는 1차전 시기에 부도놉스크 병원 인질사태를 조직·지휘했던 강경파 군사 지도자 바사예프(Шамиль Басаев)를 들 수 있다. 1997년 체첸 대선에서 마스하도프와 경쟁했지만 2위에 머물렀던 그는 대선 이후 마스하도프 정부의 제1부총리 및 총리로 임명되나 이내 사직하고는 1999년 8월 다게스탄을 침공함으로써 2차 체첸전 개전의 빌미를 제공한다.

동 덕분이라는 점에서도 이 시기에 체첸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마스하도프의 공적이 인정될 수 있다. 즉 명확히 분간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뒤엎힌 체첸의 범죄 조직, 무장 단체, 이슬람주의 세력이 마스하도프 정부와 폭력을 분점하면서 국가건설 과정을 저해·위협하고 정부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마스하도프가 이들과 정면충돌하여 이들을 무력으로 꺾멸시키는 데 나서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마스하도프가 자신이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는 내전을 야기할 것이고 체첸 내전은 러시아가 다시 체첸을 침공하는 구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분열과 내전의 회피를 자신의 주요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Sokirianskaia 2014: 109; Williams 2008: 167).

두 체첸전 사이 시기에 러시아 정부가 마스하도프 정부에게 바란 것은 물론 체첸 상황의 안정화였는데, 마스하도프 정부가 이에 실패함에 따라 러시아의 기대 또한 좌절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개입한 체첸 내 반정부 무장 세력의 여러 행동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체첸 간 관계 형성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업화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될 정도로 이들이 빈번하게 벌인 납치 행위이다.²⁰⁾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이들의 납치 행각에 가장 낙담한 이들은 물론 마스하도프를 비롯한 체첸인들이었겠지만, 체첸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들의 납치 행위는 러시아 사회의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인물들이 품고 있던 체첸 상황에 대한 공감 혹은 동정의 태도에도 균열을 일으켰고²¹⁾ 진전되어가고 있던 러시

20) 마스하도프 집권기에 벌어진 외국인, 러시아 언론인 및 관료 납치 행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Roshchin(2014) 참조. 이 시기의 납치 행위는 주로 몸값을 받아내려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체첸의 미래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마스하도프에 반대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논의된다(Evangelista 2002: 50). 한편 1997년 체첸 반군 세력이 납치로 벌어들인 수입은 적어도 2,0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된다(Russell 2007: 93).

21) 예를 들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1차전 시기에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체첸에 대해서는 비교적 타협적인 정책을 내세웠던 야블로코(«Яблоко»)가 위의 상황과 관련되어 발발한 2차전 초기에는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체첸과의 협상 문제를 놓고 당내 국가주의 분파와 논쟁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이념적 대척점에 위치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КПРФ)과 애국주의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유진숙 2005: 273-274, 278).

아와 체첸 간 경제협력 및 관계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Evangelista 2002: 52-53; Roshchin 2014: 124, 126; Sokirianskaia 2008: 123-124). 특히 1999년 3월 러시아 정부 체첸 특사 슈피군(Геннадий Шпигун) 장군이 납치되자 러시아 정부는 마스하도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나섰고, 당시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훗날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러시아-체첸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전쟁 계획이 시작되었다 (서춘식 2003: 118; Evangelista 2002: 58-59; Roshchin 2014: 128-129).

1990년대 초중반 체첸 독립의 열망이 고조되지만 러시아가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전쟁이 발발한 과정을 추동한 관계가 러시아와 체첸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비교적 단순한 양자구도로 형성되었다면, 1차전과 2차전 사이 ‘사실상’ 체첸이 독립했던 마스하도프 정권 시기에는 체첸의 사회정치적 과정을 움직이는 관계가 러시아, 체첸 정부, 체첸 내 반정부·이슬람주의 세력 사이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펼쳐진다. 즉 이 시기에는 분쟁 해결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자가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 행위자, 국가 하위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로 다원화되어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관계 형성의 과정과 구도가 더욱 다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세 행위자들이 서로에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얽히고 맞물리면서 상호이해·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 형성이 좌초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첸에서 또다시 폭력적 충돌이 발발하는 경로를 예비하는 도입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1차전과 2차전 사이 시기에 체첸을 둘러싸고 전개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8월 하사부르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1월 체첸 대선을 실시함으로써 러시아와 체첸 정부는 비록 궁극적 지향점이 상이하긴 했지만²²⁾ 일단 단기적으로는 폭력의 사용을 유보 혹은 중단하고 체첸 안정화를 위한 게임의 규칙에 합의한다. 그러나 체첸의 사실상의 독립 상태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 체첸 내 반정부·이

22)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당장은 체첸의 분리·독립을 지지했고 이후로도 이렇게 체첸을 러시아의 일부로 유지시킬 것을 목표로 했다면, 체첸 정부는 사실상의 독립을 획득한 이후 이러한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법적으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룰 것을 기대·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사부르트 협정은 러시아와 체첸 모두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던, 따라서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홍완석 2005: 248).

슬람주의 군사 세력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며 이 게임의 규칙을 거부·방해하고 나섬에 따라 러시아와 체첸 정부가 일차적 목표로 상정한 체첸 안정화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고 양측의 관계 재설정 시도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측의 기대의 불발과 관계 형성 노력의 무산은 이후 러시아가 또다시 전쟁의 수행을 통해 체첸 문제의 해결을 모색·실천하는 불씨로 작용한다. 한편 이 시기에 복잡한 구도로 펼쳐진 관계 형성의 양상과 과정이 폭력의 전개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비국가 행위자의 존재 자체가 폭력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비국가 무장 세력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며 국가 및 국가 하위 행위자 간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저해하는 직접행동을 취하면 이는 이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새로운 폭력이 동원·사용되는 동기 혹은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옐친과 두다예프 간 관계 형성이 실패하면서 발발한 1차 체첸전과 그 이후 러시아와 체첸 정부 간 관계 형성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2차 체첸전을 폭력이 발화된 행위자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논의될 수 있다. 1차전이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인 두다예프 정권, 즉 국가 하위 행위자를 제압하기 위한 국가 행위자, 즉 연방정부의 폭력으로 시작되었다면, 2차전은 체첸 안팎에서 폭력적 행동을 전개한 비국가 행위자, 즉 체첸 반정부·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국가 행위자의 폭력에서 발단되었다.²³⁾ 즉 두 전쟁 모두 국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행위자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적어도 두 전쟁 초기에 국가 행위자의 폭력이 목표로 했던 대상은 국가 하위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였다는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IV. 1999~2004: 폭력의 재발과 관계적 해법의 모색

1999년 8월 발발한 2차 체첸전은 앞 장에서 논의된 마스하도프 정부의 체첸 안정화 및 국가기능 정상화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마스하도프가 폭력사

23) 2차전 개전 이후에는 마스하도프가 반군 세력에 가담하기 때문에 2차전이 국가 행위자 대(對) 비국가 행위자의 대결 구도로 시종일관 전개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발발 초기에 대립각은 이 두 행위자 사이에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체첸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폭력수단을 독점하지는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근대적 국가건설에 실패하면서 급진적 군사 지도자·단체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또다시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감행한 결과가 2차전의 개전이기 때문이다.

1차 체첸전 시기 체첸군 야전사령관이었던 바샤예프(Шамиль Басаев)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슬람주의 이념과 수사의 채택이 카프카스 해방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구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Schaefer 2010: 165; Wilhelmsen 2005: 37-38). 마스하도프는 입장을 통해 바샤예프를 포함한 독자적인 군사 지도자들을 포섭하려 했지만, 결국 바샤예프는 마스하도프 정부를 이탈하고 1999년 8월 인접한 다게스탄 공화국을 침공하여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다. 이에 8월 말 러시아 군이 이들 반군을 처치한다는 구실로 체첸에 대규모 공습을 가함으로써 폭력 재발의 신호탄이 발사된다. 9월에는 모스크바와 남부 지역 등지에서 약 300명의 사망자를 낳은 아파트 폭탄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분노와 증오의 분위기가 팽배해지자(김태연 2013: 322-323) 신임 총리 푸틴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對)테러작전’을 진행해 나간다.

정치적 무명이었던 푸틴은 과감한 2차전 착수 및 수행을 통해 얻게 된 강한 지도자 이미지에 힘입어 2000년 3월 대선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지만, 이미 2000년 여름 무렵에는 체첸에서 군사적 승리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Russell 2008: 661-662).²⁴⁾ 이에 따라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는 한편 새로운 해법의 모색에 나서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친러파 체첸인 지도자에게 체첸 관련 제반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시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체첸화(Chechenization) 정책의 선택이다. 일종의 ‘당근’ 정책이자 포섭(co-optation) 전략의 성격을 갖는 체첸화(Matejova 2013: 12) 프로젝트는 2003년 3월 체첸 공화국 헌법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같은 해 10월 체첸 대선에서 아흐마트 카디로프(Ахмат Кадыров)²⁵⁾ 선출되면서 본격

24) 군사력 우위 및 억압적 조치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2차전 초기부터 러시아 군의 효과적인 대(對)반군 전투 수행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 군이 적절한 대테러작전 수행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점, 둘째, 러시아 군이 체첸 지역 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지적된다(Souleimanov 2015: 101-102).

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²⁶⁾

전쟁의 수행과 그 출구 찾기가 병행된 이 시기에 체첸 안팎에서 폭력은 매우 극단적인 방식과 규모로 전개된다. 예를 들면 개전 초기 러시아 군의 폭격은 1차전 시기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가해졌다.²⁷⁾ 또한 2차전 초기 체첸 마을이나 도시를 포위·봉쇄한 채 주민들 사이에서 반군 혐의자 및 지지자를 가려내기 위한 러시아 군의 소위 ‘소탕(зачистка)’ 작전이 납치, 감금, 고문, 약탈, 살해 등을 수반하며 체첸 도처에서 실시된 사실은(Gilligan 2010: 46, 50-76; Lyall 2010: 3-5; Souleimanov 2015: 100-101),²⁸⁾ 러시아 측의 폭력이 매우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실행되었음을 입증해준다. 2차전 시기에 체첸 반군 측이 벌인 폭력사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3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2년 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태와 33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4년 9월 북카프카스 북(北)오세티야(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공화국 베슬란(Беслан) 학교 인질사태를 들 수 있다.

2차 체첸전 시기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체첸에서 폭력이 전개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관계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2000년 5월 집

25) 아흐마트 카디로프는 1차전 시기에는 두다예프를 지지하며 분리주의 운동에 가세했지만, 2차전이 시작되면서 친러파로 전향한다. 체첸 최고 무프티(mufti)이기도 했던 그가 푸틴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동기로는 체첸 등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던 해외 이슬람주의 세력에 맞서 체첸 전통 이슬람과 자기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그가 동맹세력 혹은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 거론된다(Малашенко 2009: 22, 98-99).

26) 체첸화 정책의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태연(2012: 330-335), Russell(2011: 511-516), Sakwa(2010: 605-609), Sokirianskaia(2008: 126-128), Ware(2009: 158-161) 참조. 2000~2008년 푸틴 집권 1·2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도 매년 평균 7% 정도의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체첸의 사회경제적 재건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포함하는 체첸화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해주는 경제구조적 요인으로 기능했다.

27) 또한 2차전에서 러시아 군이 체첸에 가한 폭격이 매우 강도 높은 것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2003년 UN은 그로즈니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파괴된 도시라고 발표했다(BBC News 2007).

28) 이후 ‘소탕’ 작전은 체첸뿐만 아니라 북카프카스 지역 다른 곳에서도 실시되면서 러시아 군경 및 체첸 반군이 펼치는 여러 폭력행위 유형 가운데 가장 지역적 분산도가 높은 범주가 된다(O’Loughlin and Witmer 2011: 192).

권 직후 푸틴은 7개 연방관구를 설치하고 연방의회 상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데, 이는 그가 기존 중앙-지방관계의 재편을 자신이 표방한 기치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준다.²⁹⁾ 이때 그가 당위적으로 지향한 중앙-지방관계 모델은 중앙집권화된 혹은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형태였으며, 그가 체첸 문제에 대한 관계적 해법을 시도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위계적 연방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도로 발발한 2차 체첸전이나 그 진행 중에 시작된 체첸화 프로젝트 모두 이러한 그의 연방관계에 대한 인식 틀에 따라 러시아-체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그의 일관된 목적의식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³⁰⁾

푸틴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지향이 체첸 문제 해결 방식 및 행동의 변화와 연관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앞 장에서 논의되었듯이, 푸틴 집권 이전부터 체첸의 상황은 중앙정부는 물론 마스하도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9년 8월 바사예프 등 체첸 반군 세력의 다게스탄 침공이 발발한다. 이러한 국가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고 이를 뒤에 총리로 임명된 푸틴이 체첸 문제 해결을 위해, 즉 위에서 언급된 인식 틀에 따라 체첸을 위계적 연방관계 내에 위치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호한 방식은 군사행동이었다. 이는 이미 군사작전이 전개되고 있던 8월 말 당시 푸틴 총리가 마스하도프로서는 선뜻 수용하거나 실행하기 힘든 체첸 내 무장·범죄 단체를 근절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고는 그 이행 여부가 검증되기도 전에 곧바로 마스하도프 정부의 합법성을 부정하면서 군사행동을

29) 2000년 5월 대통령령에 의해 7개 연방관구를 신설하여 당시 89개 연방주체를 이에 편입시킨 푸틴의 조치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혹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뒤이어 지방 행정부와 입법부 수반으로 구성되던 연방의회 상원이 지방 행정부와 입법부 수반이 지명한 인물로 구성되도록 변경한 조치 역시 지방 엘리트의 권한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입안된 결정이었다. 집권 2기 초기였던 2004년 12월 푸틴은 지방 행정부 수반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사실상 연방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과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30) 푸틴이 일관적으로 위계적 연방관계의 틀 내에서 체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가 대통령 취임 초기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북카프카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점이나 매해 발표하는 의회교서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체첸을 러시아의 정치적·법적 공간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강조한 점에서 알 수 있다(김태연 2012: 337-338; Taylor 2007: 3).

확대·강화했다는 점에서(Evangelista 2002: 68-70) 알 수 있다. 엘친이 두다예프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푸틴이 마스하도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마스하도프 정권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기대가 좌절된 현실에서 푸틴은 체첸을 위계적 연방관계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군사적 방식의 사용을 선택했고, 이로써 체첸에서 폭력적 충돌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발발한 2차 체첸전이 폭력의 행사를 통해서라도 체첸을 수직화된 연방구조에 묶어 두려는 행동이었다면, 체첸화는 체첸 현지인 지도자에게 체첸 통치 및 관리 권한을 위임·이양해서라도, 즉 권력을 외주화해서라도 체첸의 연방 이탈을 막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려는 정책이었다. 일견 모순적 혹은 상호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지배·통제의 시도, 즉 전쟁 및 ‘소탕’ 작전과 원거리 후방 지원 혹은 간접통치 전략, 즉 현지화 정책이 사실상 동시에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노선 모두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의 수립, 다시 말하면 체첸 문제에 대한 관계적 해법의 모색·적용이라는 동일한 인식 틀과 목적의식적 노력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된 다른 방식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이 같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지면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행동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체첸화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 요인은 크렘린에 충성하면서도 체첸의 상황을 통제할 만한 영향력 혹은 ‘실질적 투쟁력’을 가진(Дубнов 2016: 2) 현지인 행위자를 찾는 일이었다. 따라서 푸틴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 지도자의 물색·검증 및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 예를 들면 2000년 6월 푸틴은 아흐마트 카디로프를 체첸 임시정부 수반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를 체첸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할 잠재적 현지인 파트너로 선정하지만,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아서 2003년 10월 그가 체첸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었던 군사 지휘관들의 무력 보유를 용인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작동시켰다(Ratelle and Souleimanov 2016: 1294-1297; Souleimanov 2015: 102-104). 그러나 그가 신임할 수 있는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자 푸틴 정부는 2003년 체첸 대선에서 합법성 회복의 의지를 훼손시킬 정도로 선거 조작을 감행하면서까지 그를 체첸화의 현지 대리인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Sakwa 2010: 606).

체첸을 포함한 러시아연방 구성단위와의 관계 설정에서 엘친과 푸틴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영토적 통일성의 유지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푸틴은 위계적 연방관계·구조 건설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 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비전과 해법을 들고 이 문제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체첸전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체첸화 정책이 기획·집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일관된 문제 인식 틀을 갖고 영토적 통일성 유지 및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와 체첸 간에 위계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체첸화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이 정책이 러시아와 체첸 정부 수반 간의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Малашенко 2009: 31-32), 즉 개인들 간의 거래와 타협, 공조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³¹⁾ 다시 말하면, 푸틴 정부가 공식 제도로서 위계적 연방관계·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방식으로 체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들 간의 비공식적인 위계적 관계 형성에 의존하는 역설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관계의 형성은 이를 통해 억제하려 한 폭력이 해당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 지리적으로 분산·확산되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V. 2004~ : 폭력의 분산과 위계적 관계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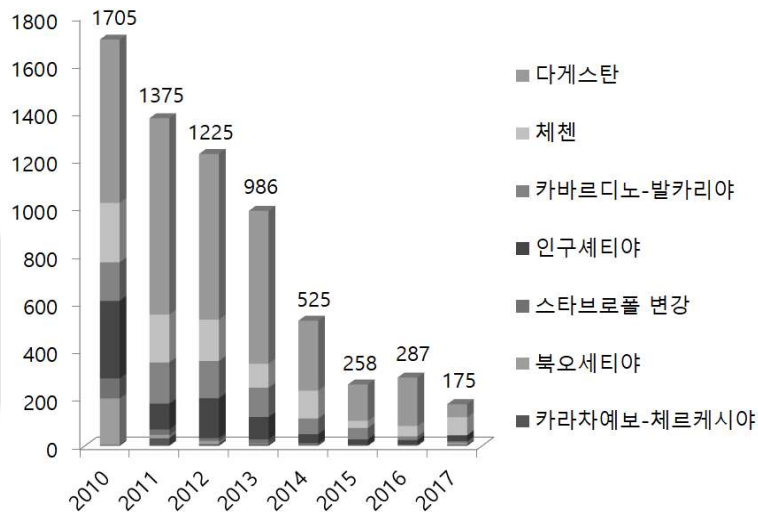
2차 체첸전 혹은 ‘대테러작전’의 종료가 공식 발표되는 것은 메드베데프 집권기인 2009년 4월의 일이지만, 체첸화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체첸 및 그 주변에서 폭력의 전개는 그 이전에 이미 전기(轉機)를 맞게 된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국면의 특징은, 체첸 현지인 정권이 연방정부로부터 체첸 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권한과 자원을 위임받아 체첸에서 폭력의 발발을 제어해 나감에 따라³²⁾ 체첸 및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국제 이

31) 유사한 맥락에서 푸틴과 아흐마트 카디로프 간의 합의는 ‘비밀조약’에 의한 “관계의 봉건적·식민적 구성”이었다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Дубнов 2016: 1).

32) 그 단적인 예로 러시아 군의 ‘소탕’ 작전이 수행된 이후에 비해 체첸인 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이후에 반군의 공격이 약 40% 줄어들었다는 사실을(Lyall 2010: 9) 들 수 있다. 이는 체첸화 정책의 실행에 따른 체첸인 부대에 의한 대(對)반군 활동이 러시아 군의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슬람주의 운동과 결합된 반군 세력이 연루된 폭력행위의 전체 빈도는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적 범위는 체첸 주변 지역으로 이동·분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북카프카스 지역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규모와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1>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흐름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그림 1> 2010~2017년 북카프카스 지역 희생자* 수



* 희생자에는 민간인, 러시아 군경, 체첸 반군 부상자 및 사망자가 포함된다.
출처: Кавказский Узел(2018).

2004년 5월 반군 세력에게 변절자로 낙인찍힌 아흐마트 카디로프가 이들이 일으킨 폭탄테러로 사망하면서 체첸화 과정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듯했지만, 일종의 탐색기를 거친 뒤 푸틴이 2007년 2월 아흐마트의 아들 람잔 카디

체첸에서 폭력의 발생은 1999~2002년에 절정에 이르렀지만, 2004년 무렵에는 반군의 중추가 크게 파괴되면서 2000~2004년 사이에 체첸 반군의 폭력은 대략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04~2007년 체첸에서 폭력의 발생은 1999~2003년에 비해 90% 이상 낮아졌다(O'Loughlin and Witmer 2011: 185; O'Loughlin et al. 2011: 597; Souleimanov 2015: 107-108).

로프(Рамзан Кадыров)를 체첸 대통령직에 임명함으로써 체첸화 정책은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김태연 2012: 331-332, 341-342). 체첸 공화국 내부에서 폭력의 발발을 통제하고 있는 람잔 카디로프는 말하자면 푸틴에게 정치적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제공받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Schaefer 2010: 253; Ware 2009: 159; Маркедонов 2015: 30-31)³³⁾ 공화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안정화·정상화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체첸화 정책의 진행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폭력이 체첸 내부에서는 억제되고 있는 반면에 체첸 외부로 전파되고 있는 폭력의 지리적 분산·확산이다. 이처럼 폭력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체첸화 정책의 현지인 행위자 역할을 이어 받은 람잔 카디로프가 체첸 내에서의 납치, 고문, 실종 등 폭력행위로 악명 높은 사병(私兵) 조직 ‘카디로프 부대(кадыровцы)’를³⁴⁾ 대(對)반군 작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체첸 반군 세력에게 극심한 압박을 가하여 이들이 체첸 경계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Sagramoso 2012: 592).³⁵⁾

이에 따라 체첸화 정책 시행 이후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금도 지속되고 있

33) 최근까지도 연방정부가 체첸 공화국에게 제공한 보조금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체첸은 러시아에서 연방정부가 보다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조금 항목인 균형예산 지원금을 가장 많이 제공받은 연방주체로 그 규모는 이 지원금을 두 번째로 많이 제공받은 연방주체에 비해 7배 가까이 많았다(Holland 2016: 56-57). 그러나 2014년 이후 서구의 제재 조치에 따른 러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2018년 체첸에 배정된 보조금은 2007~2015년 평균 보조금의 절반 이하로 삭감되었다(Aliyev 2018: 12). 한편 북카프카스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보조금의 제공이 폭력의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는다고 논의되기도 한다(Holland *et al.* 2017: 631-635).

34) ‘카디로프 부대’는 1차전 시기에 아흐마트 카디로프의 경호부대로 조직되었으나, 그가 친러파로 전향한 2차전 개전 이후에는 대(對)반군 활동 수행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아흐마트 카디로프의 사망 이후에는 람잔 카디로프의 권력 투쟁·강화에도 이용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준군사 집단의 정규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그 규모는 10,000~12,000명으로 추산된다. ‘카디로프 부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Šmíd and Mareš(2015) 참조.

35) 물론 폭력이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확대되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체첸 분쟁의 유출 효과(spillover effect)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갈등 확산의 다양한 형태와 기제, 지역적 맥락과 문제, 행위자 등이 개입·작용하면서 폭력의 확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Campana and Ratelle 2014; O’Loughlin *et al.* 2011: 597; Ware 2011: 489).

는 체첸 및 그 주변에서의 폭력의 행위자 구도의 특징은, 1·2차 체첸전 시기와 달리, 연방정부가 폭력의 최전선에 나서기보다는 체첸 반군 혹은 국제 이슬람주의 세력이 체첸 안팎에서 벌이는 폭력적 행동에 대해 주로 람잔 카디로프 정권이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³⁶⁾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체첸화가 진행되면서 체첸 및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전개되는 폭력의 주체로서 국가 행위자는 점차 이탈해 나가고 국가 하위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가 대립·충돌하는 새로운 행위자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폭력은 체첸 외부 및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즉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0월 이슬람주의 이념 혹은 수사를 중심으로 반군 운동을 지역화·조직화하기 위한 단체 ‘카프카스 에미리트(Кавказский эмират)’의 수립 같은 폭력의 수직적 확산도 진행되고 있다(Campana and Ratelle 2014: 125-128; Souleimanov 2011: 161-165). 그 결과 한편으로 2009년 체첸에서 폭력사태 및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접한 다게스탄 및 인구셰티야(Ингушетия) 공화국에서의 그 수보다 적어졌고(O’Loughlin *et al.* 2011: 601), 이후에도 체첸에서 폭력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북카프카스 지역 개별 공화국 차원에서는 폭력의 확대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³⁷⁾ 2011년 1월 모스크바 도모데도보(Домодедово) 국제공항 폭탄테러, 2013년 10월과 12월 볼고그라드(Волгоград) 기차역 및 버스 폭탄테러, 2017년 4월 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같은, ‘카프카스 에미리트’ 혹은 국제 이슬람주의 세력과 연관된 폭력사태는 여전히 러시아 곳곳에서 산발적·간헐적으로 발발하고 있다.³⁸⁾

36) 2002년 이후로 점점 더 연방정부는 대(對)반군 활동에서 카디로프 부자(父子)의 지휘를 받는 친러 체첸인 부대에 의존하게 되면서 2004년부터 체첸에서 ‘소탕’ 작전은 러시아 군보다 체첸인 부대에 의해 더 많이 수행되기 시작하며, 현재는 ‘카디로프 부대’가 대테러작전을 주도하는 부대로서 러시아 군을 대부분 대체했다고 논의된다(Halbach 2018: 14; Lyall 2010: 4). 그뿐만 아니라 2012년 람잔 카디로프는 다게스탄에 대테러작전을 위한 체첸인 부대를 배치시키고 인구셰티야(Ингушетия)에서 대테러작전을 수행하여 두 공화국 지도부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Halbach 2018: 26; Souleimanov and Ehrmann 2012).

3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현승수(2011: 35-40), Campana and Ratelle(2014: 121-128), O’Loughlin and Witmer(2012: 2383-2388), O’Loughlin *et al.*(2011: 603-608) 참조.

38) 그러나 최근 ‘카프카스 에미리트’ 지도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IS 가담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체첸 및 북카프카스 지역 폭력의 관계적 요인은 아래와 같이 논의될 수 있다. 2004년 아흐마트 카디로프의 돌연한 사망 이후 그의 아들 람잔 카디로프가 체첸화 정책을 실행할 현지인 행위자로 선정되면서 러시아와 체첸 최고 지도자 간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 수립 과정은 지속·심화되고 있다.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가 푸틴에 대한 람잔 카디로프의 충성과 지지, 람잔 카디로프에 대한 푸틴의 신뢰와 후원이 맞교환되는 방식과 관계를 통해 유지·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람잔 카디로프는 푸틴의 대통령직 임기가 만료되어가던 2007년 11월 자신이 러시아 ‘대통령의 남자’나 러시아 국가기구의 사람이 아니라 ‘푸틴의 남자’라고 표현함으로써(Sakwa 2010: 608) 자신과 푸틴의 관계가 단순히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별히 개인적인, 그러나 위계적인 관계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조기 대선을 통한 푸틴의 재집권 가능성 소문이 돌던 2008년 11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직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Малашенко 2009: 67) 통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에 교체된 이후에도 푸틴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표명했다. 또한 2008년 10월 그는 재건된 그로즈니 시의 중심 도로를 ‘푸틴 대로’로 개칭했고, 2010년 8월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은 한 명뿐이어야 한다면서 공화국 대통령 칭호를 ‘수반(head)’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실행했다(Borisov 2010). 그리고 2008년 8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주도한 그루지야 침공 때와는 달리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시에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Ratelle and Souleimanov 2016: 1304) 푸틴의 대외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³⁹⁾ 2016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푸틴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고 자신은 “직무상으로는 아니라 개인적으로” 푸틴에게 충성한다고 발언함으로써(TACC 2016) 자신과 푸틴의 관계의 성격을 직설화법으로 재차 인정했다.

이러한 푸틴에 대한 람잔 카디로프의 굳건한 충성심에 상응하여 람잔 카디로프에 대한 푸틴의 신뢰 및 람잔 카디로프와의 개인적 관계의 지속을 통한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푸틴의 믿음도 확고해

이 조직은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Youngman 2016: 194-195).

39) 이러한 그의 행보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그는 국제무대 및 러시아 대외정책 영역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역 정치인이 되었고, 그의 체첸은 마치 ‘초국적(cross-border) 행위자’처럼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는다(Aliyev 2018: 10; Halbach 2018: 26-29).

보인다. 예를 들면 2006~2007년경 일부 고위 관료, 군부, 실로비키(силловики) 사이에서 람잔 카디로프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Russell 2008: 671-672; Sakwa 2010: 610),⁴⁰⁾ 2007년 2월 푸틴은 그를 체첸 대통령직에 임명함으로써 그와 함께 체첸화 정책을 실행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람잔 카디로프가 체첸에서 여성의 머릿수건 착용 의무화, 일부다처제의 비공식적 시행, 소위 ‘문란한’ 여성의 명예살인 정당화 등 러시아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탈세속화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국가 안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푸틴은 이러한 조치들을 묵과하고 있다(Ratelle and Souleimanov 2016: 1305; Sakwa 2013: 180; Schaefer 2010: 258-259).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푸틴과 람잔은 서로에 대한 인질이 되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이들의 ‘상호의존성’은 명백해졌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아흐마트 카디로프는 이루지 못했던 푸틴과의 후견인-수혜자 관계의 완성이 람잔 카디로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Малашенко 2009: 32, 34).⁴¹⁾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체첸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작동했던 현지인 행위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까지 무의미해질 정도로 푸틴과 람잔 카디로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체첸 간에 예외적이고 특수한 관계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현실은 예기치 못한 난처함과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체첸이라는 예외적 사례가 일정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바로 그 특수한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형성·유지·강화하려 했던 러시아연방의 위계화된 중앙-지방관계에 어떤 균열 혹은 틈새가 발생했고, 그 균열 혹은 틈새의 지점에서 새로운 방식과 범위의 폭력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체첸을 포함한 북카프카스 지역 공화국들은 고질적인 부패, 비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기능, 낮은 경제발전 수준과 빈곤, 청년층의 어두운 고용 전망, 종교적 긴장관계 등 이슬람주의 세력이 대안 혹은 해답을 제시해준다고 여겨질

40) 최근에도 일부 실로비키, 특히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람잔 카디로프와 마치 치외법권 지대 같은 체첸에 대해 비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Halbach 2018: 19).

41)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체첸이 확대한 권한에 대해서, 람잔 카디로프 시기의 체첸은 과거에 두 차례나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의 상당 부분, 말하자면 일종의 ‘독립 없는 분리’를 체첸화를 통해서 획득했다고 논의된다(Sakwa 2013: 192, 195).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을 막기 위해 두 차례나 전쟁을 치른 후에 독립과 유사한 것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표현되기도 한다(Ware 2011: 499).

수 있는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조합과 형태가 개별 공화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Campana and Ratelle 2014: 122; O'Loughlin *et al.* 2011: 597; Sakwa 2013: 180-181). 푸틴은 개인적 관계의 수립을 통해 폭력적 충돌을 불사했던 체첸을 안정화시키고 위계적 연방관계 내에 유지시키는 특별한 전략을 채택·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모든 북카프카스 공화국들에 적용할 수는 없다.⁴²⁾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는 옐친 시기 쌍무조약 남발을 통해 힘겹게 연방을 유지한 방식인 분권화된 연방관계로의 복귀 혹은 퇴행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는 푸틴이 지향하는 중앙집권화된 연방관계 모델과 정반대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체첸 간 예외적 관계가 형성·심화됨에 따라 일종의 딜레마가 발생한 것인데, 러시아가 체첸과는 예외적 관계를 성사시킴으로써 전체 연방관계의 위계화 작업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했지만, 체첸과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북카프카스 공화국들과는 이러한 예외적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는 문자 그대로 극히 드문 사례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되어버림에 따라 예외의 보편화에 관한 모순적 딜레마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푸틴 집권 3기의 북카프카스 지역 공화국 정부 수반 선출 혹은 임명 방식 및 그 결과가 보여주듯이, 연방정부는 아직도 북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개별 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동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Zhemukhov 2018). 이처럼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포괄적 대응이 부재하고 그 통제력이 약하다는 점과 기존의 뿌리 깊은 정치·경제·사회문제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 결합된 현실은 이슬람주의 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균열 혹은 틈새가 되면서 이들이 이를 활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위에서 논의된 체첸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으로의 폭력의 지리적 분산 혹은 확산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단 체첸화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폭력이 체첸에서 그 주변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체첸화 프로젝트를 통한 예외적인 위계적 관계의 형성·발전은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폭력이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42) 러시아에게는 “체첸의 경험을 북카프카스 지역 정책을 위한 모형(template)으로 사용할 욕구가 없는 것 같다.”(Russell 2011: 526)

VI. 결론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체첸에서 폭력이 발발하고 전개된 과정을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여러 사회운동의 기회공간이 열린 소비에트 말기의 구조적 조건에서(김태연 2015: 54-55) 역사적 불만을 품고 있던 체첸은 분리·독립의 민족적 열망을 분출시켰지만, 러시아가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체첸 간에 첫 번째 전쟁이 발발했다. 이 시기 러시아와 체첸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친과 두다예프 모두 매우 권위주의적인 인물들이었고, 이들 간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러시아와 체첸 간 갈등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로 이어졌다. 1차 체첸전이 종료되고 2차 체첸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실상’ 독립한 체첸의 마스하도프 정부는 체첸 내부 폭력의 발발은 봉합하지만, 내부 반정부·이슬람주의 세력과의 마찰과 경쟁 속에서 독자적으로 체첸의 안정화·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만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도 체첸의 안정화를 기대했지만, 마스하도프 정부의 실패로 이러한 기대가 좌절되면서 러시아와 체첸의 관계 형성 시도는 또다시 무산된다. 이러한 가운데 체첸 반정부·이슬람주의 세력은 결국 체첸 외부에서까지 무력행사에 나서고, 이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폭력이 재발하는 빌미가 되는데, 바로 이 ‘대테러작전’을 계기로 러시아 대통령직에 오른 푸틴은 이를 진행하는 동시에 체첸화라는 해법을 모색·실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푸틴의 전쟁 수행과 체첸화 정책 착수는 각각 폭력의 사용과 권력의 현지화라는 다른 방식으로 위계적 연방관계의 틀 내에서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체첸화의 현지인 행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람잔 카디로프가 강압적 수단을 통해 체첸 반군 세력의 폭력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편으로 체첸을 비롯한 북카프카스 지역 폭력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주의 세력과 연관된 폭력이 체첸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분산·확산되는, 폭력의 새로운 전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개인적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수반한 딜레마를 반영하는 혹은 그 딜레마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첸의 사례는 폭력의 전개와 그 관계적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의한다. 첫째, 적대적 언어와 태도로 인한 관계 형성의 실패와 기대의 좌절에 따른 관계 형성 시도의 무산은 물론이거니와 위계적 관계 수립의 시도 역시 폭력의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등 해결을 위한 옐친과 두다예프의 관계 형성의 실패와 마스하도프 집권기에 러시아와 체첸이 체첸 안정화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며 뒤따라온 관계 형성 시도의 무산은 러시아-체첸 간 갈등관계가 폭력적 충돌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로부터 이미 빚어진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호적 관계의 형성은 세심한 주의와 지난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푸틴이 러시아-체첸 간 위계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로 채택한 우선적인 방식이 전쟁이었다는 점은, 위계적 관계 수립의 시도 그 자체가 폭력의 속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계적 관계를 빠르게 혹은 손쉽게 만들어내기 위한 우선적인 방법으로 폭력에 의거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이는 위계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등한 행위자 간의 소통과 대화라는 방식과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확고부동한 수직적 질서 창출을 통한 효율적인 성과 산출을 지향하며, 따라서 신속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폭력의 사용에 대해 거부감이 약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둘째, 체첸화의 진행을 통해 러시아와 체첸 간에 형성된 예외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반된 북카프카스 지역 폭력 전개의 새로운 양상은, 제도 층위의 관계 형성이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한해서라도 행위자 층위의 관계 형성에 의존할 때, 이는 제도 건설 과정에 균열 혹은 틈새를 발생시켜 폭력이 침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위계화된 중앙-지방관계에 입각하여 러시아 연방제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과정에 개인들 간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위계적 관계 수립의 사례가 개입·기여한 사실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위계적 관계 형성이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위계적 관계 형성의 예외적 사례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관계 형성의 층위와 방식이 일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혼선 혹은 예외적 관계 수립의 사례를 보편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생겨난 딜레마는 이미 구성된 혹은 구성되어가고 있는 제도적 틀을 거부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폭력을 사용하여 이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할 때 이용·공략하는 틈새 공간이 될 수 있다. 예외 공간 체첸으로부터 주변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이슬람주의 세력과 연관된 폭력이 분산·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이처럼 러시아와 체첸 간에 예외적 관계가 형성·심화됨에 따라 야기된 딜레마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스하도프 시기 및 체첸화 정책 실시 이후 시기 러시아-체첸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때 이들 간에 폭력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평화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하거나 그 노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마스하도프가 집권했던 시기이나 체첸화 정책 시행 이후 카디로프 부자(父子)가 통치하고 있는 현재에나 러시아와 체첸의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된 공동의 목표는 체첸의 안정화·정상화였는데, 이 두 시기에는 러시아와 체첸 간에 폭력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마스하도프 정권이 독립과 유사한 수준의 자치권을 획득하고도 체첸의 사회경제적 안정화 및 국가기능 정상화에 실패하자 러시아는 체첸 문제 해결을 체첸인의 손에 맡겨서는 체첸 안정화·정상화라는 성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결국 폭력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재시도를 낳았다. 한편 체첸화 정책 실행 이후 카디로프 정권은 반군 세력의 폭력을 억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마스하도프 정권과 달리 체첸 사회의 안정화·정상화 면에서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카디로프 정권이 체첸 내부에서는 폭력행위를 잠재우는데 성공하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를 성취했다는 점은 온전한 평화가 아닌 폭력의 지역적 분산·확산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폭력의 출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폭력이란 전염성 혹은 연쇄성을 속성으로 하는 행위여서⁴³⁾ 폭력을 폭력으로 막으려 할 때 이는 새로운 폭력의 발단이 될 수 있다.

43) 지라르(2000: 50-54)는 폭력이 '아주 감염되기 쉬운', 아직 그 병원균이 확인되지 않은 전염병과 같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 김인성(2007) 「타타르스탄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의 연방관계 분석: 타타르스탄 ‘공화국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2권 2호, 171-195쪽.
- _____ (2009) 「러시아연방에서의 ‘주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고찰: 타타르스탄과 체첸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 147-175쪽.
- 김태연(2012) 「체첸화: 필요와 탐욕의 공동 프로젝트」, 『평화연구』, 제20권 2호, 323-364쪽.
- _____ (2013) 「러시아인이 바라보는 체첸인, 체첸인이 바라보는 체첸」, 『중소연구』, 제37권 제1호, 309-356쪽.
- _____ (2015)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부상과 쇠퇴」,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 39-86쪽.
- 서춘식(2003) 「러시아의 제2차 체첸침공과 민군관계」, 『슬라브연구』, 제19권 1호, 115-150쪽.
- 유진숙(2005) 「체츠나전쟁의 민족주의담론과 러시아 정당: 공산당과 야블로코를 예로 하여」,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263-281쪽.
- 정세진(2005) 「체첸 전쟁의 기원: 러시아와 체첸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0권 2호, 355-386쪽.
- 지라르, 르네(2000)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옮김, 서울: 민음사.
- 현승수(2011)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분쟁 확대: ‘장기적 사회분쟁’의 관점에서」, 『슬라브연구』, 제27권 3호, 21-60쪽.
- 홍완석(2005) 「험난한 여정, 러시아의 체첸분쟁: 원인과 경과,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237-261쪽.
- Дубнов, Вадим(2016) “Проект «Чечня 2.0». Рамзан Кадыров перезаключил свой договор с российской властью”,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16.03, https://carnegieendowment.org/files/Article_Dubnov_Russ.pdf(검색일: 2018.09.19).
- Кавказский Узел(2018) “Статистика жертв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за 2010–2017 годы по данным Кавказского Узла”, http://www.kavkaz-uzel.eu/articles/Conflict_victims_North_Caucasus/(검색일: 2018.09.25).
- Малашенко, Алексей(2009) *Рамзан Кадыров: российский политик кавказ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 РОССПЭН.

Маркедонов, Сергей(2015) “Трансформация «чече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Ислам Текушев, Кирилл Шевченко и Сергей Маркедонов(ред.)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на пороге XXI века: факторы неустойчивости*, Прага: Medium Orient, С. 29-32.

ТАСС(2016) “Кадыров: я ещё не заслужил звания "пехотинец Путина””, 28 ноября, <https://tass.ru/politika/3816589>(검색일: 2018.11.12).

Тишков, В. А.(2001) *Общество в вооружённом конфликте: Этнография чеченской войны*, М.: Наука.

Aliyev, Huseyn(2018) “The Year of a Strongman: Ramzan Kadyrov in 2017,”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222, pp. 10-13.

BBC News(2007) “Scars Remain amid Chechen Revival,” 2007.03.03, http://news.bbc.co.uk/2/hi/programmes/from_our_own_correspondent/6414603.stm(검색일: 2018.11.14).

Borisov, Sergey(2010) “Chechen Parliament Renames Kadyrov’s Job Title,” *RT*, 2010.09.02, <https://www.rt.com/politics/russia-chechnya-president-title/>(검색일: 2018.09.22).

Campana, Aurélie and Jean-François Ratelle(2014) “A Political Sociology Approach to the Diffusion of Conflict from Chechnya to Dagestan and Ingushetia,”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7, No. 2, pp. 115-134.

Dunlop, John B.(2000) “How Many Soldiers and Civilians Died during the Russo-Chechen War of 1994–1996?” *Central Asian Survey*, Vol. 19, No. 3/4, pp. 329-339.

Evangelista, Matthew(2002) *The Chechen Wars: Will Russia Go the Way of the Soviet Un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illigan, Emma(2010) *Terror in Chechnya: Russia and the Tragedy of Civilians in Wa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lbach, Uwe(2018) “Chechnya’s Status within the Russian Federation: Ramzan Kadyrov’s Private State and Vladimir Putin’s Federal “Power Vertical”,” SWP Research Paper.

Holland, Edward C.(2016) “Economic Development and Subsidies in the North Caucasu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63, No. 1, pp. 50-61.

- _____, Frank D. W. Witmer, and John O'Loughlin(2017) "The Decline and Shifting Geography of Violence in Russia's North Caucasus, 2010–2016,"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8, No. 6, pp. 613-641.
- Lieven, Anatol(1998) *Chechnya: Tombstone of Russian Powe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yall, Jason(2010) "Are Coethnics More Effective Counterinsurgents? Evidence from the Second Chechen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1, pp. 1-20.
- Matejova, Miriam(2013) "Russian "Chechenization" and the Prospects for a Lasting Peace in Chechnya," *International Journal on World Peace*, Vol. 30, No. 2, pp. 9-34.
- O'Loughlin, John and Frank D. W. Witmer(2011) "The Localized Geographies of Violence in the North Caucasus of Russia, 1999–2007,"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101, No. 1, pp. 178-201.
- _____(2012) "The Diffusion of Violence in the North Caucasus of Russia, 1999–2010,"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44, No. 10, pp. 2379- 2396.
- O'Loughlin, John, Edward C. Holland, and Frank D. W. Witmer(2011) "The Changing Geography of Violence in Russia's North Caucasus, 1999–2011: Regional Trends and Local Dynamics in Dagestan, Ingushetia, and Kabardino-Balkari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2, No. 5, pp. 596-630.
- Ratelle, Jean-François and Emil Aslan Souleimanov(2016) "A Perfect Counterinsurgency? Making Sense of Moscow's Policy of Chechenisation," *Europe-Asia Studies*, Vol. 68, No. 8, pp. 1287-1314.
- Roshchin, Mikhail(2014) "Kidnapping and Hostage Taking between the Two Chechen Wars (1997–1999)," Anne Le Huérou, Aude Merlin, Amandine Regamey, and Elisabeth Sieca-Kozłowski(eds.) *Chechnya at War and Beyo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8-132.
- Russell, John(2007) *Chechnya – Russia's 'War on Terr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8) “Ramzan Kadyrov: The Indigenous Key to Success in Putin’s Chechenization Strategy?” *Nationalities Papers*, Vol. 36, No. 4, pp. 659- 687.
- _____ (2011) “Kadyrov’s Chechnya – Template, Test or Trouble for Russia’s Regional Policy?” *Europe-Asia Studies*, Vol. 63, No. 3, pp. 509-528.
- Sagramoso, Domitilla(2012) “The Radicalisation of Islamic Salafi *Jamaats* in the North Caucasus: Moving Closer to the Global *Jihadist* Movement?” *Europe-Asia Studies*, Vol. 64, No. 3, pp. 561-595.
- Sakwa, Richard(2010) “The Revenge of the Caucasus: Chechenization and the Dual State in Russia,” *Nationalities Papers*, Vol. 38, No. 5, pp. 601-622.
- _____ (2013) “Blowback? Chechnya and the Challenges of Russian Politics,” Robert Bruce Ware(ed.) *The Fire Below: How the Caucasus Shaped Russia*, New York and London: Bloomsbury, pp. 175-201.
- Schaefer, Robert W.(2010)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vat to Jihad*, Santa Barbara: Praeger.
- Šmíd, Tomáš and Miroslav Mareš(2015) “‘Kadyrovtsy’: Russia’s Counterinsurgency Strategy and the Wars of Paramilitary Clan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 No. 5, pp. 650-677.
- Sokirianskaia, Ekaterina(2008) “Ideology and Conflict: Chechen Political Nationalism Prior to, and During, Ten Years of War,” Moshe Ganner(ed.) *Ethno-Nationalism, Islam and the State in the Caucasu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02-138.
- _____ (2014) “State and Violence in Chechnya (1997–1999),” Anne Le Huérou, Aude Merlin, Amandine Regamey, and Elisabeth Sieca-Kozłowski(eds.) *Chechnya at War and Beyo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93-117.
- Souleimanov, Emil(2011) “The Caucasus Emirate: Genealogy of an Islamist Insurgency,” *Middle East Policy*, Vol. 18, No. 4, pp. 155-168.
- _____ (2015) “An Ethnography of Counterinsurgency: *Kadyrovtsy* and Russia’s Policy of Chechenization,” *Post-Soviet Affairs*, Vol. 31, No. 2, pp. 91-114.
- _____ and Maya Ehrmann(2012) “The Redeployment of Chechnya-

- Based Troops to Dagestan: Background, Motives, and Repercussions,” *Connections: The Quarterly Journal*, Vol. 11, No. 3, pp. 67-75.
- Taylor, Brian D.(2007) “Putin’s “Historic Mission”: State-Building and the Power Ministries in the North Caucasu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4, No. 6, pp. 3-16.
- Ware, Robert Bruce(2009) “Chechenization: Ironies and Intricacies,”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5, No. 2, pp. 157-169.
- _____ (2011) “Has the Russian Federation Been Chechenised?” *Europe-Asia Studies*, Vol. 63, No. 3, pp. 493-508.
- Wilhelmsen, Julie(2005)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Islamisation of the Chechen Separatist Movement,” *Europe-Asia Studies*, Vol. 57, No. 1, pp. 35-59.
- Williams, Brian Glyn(2008) “Allah’s Foot Soldiers: An Assessment of the Role of Foreign Fighters and Al-Qa’ida in the Chechen Insurgency,” Moshe Gammer(ed.) *Ethno-Nationalism, Islam and the State in the Caucasu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56-178.
- Youngman, Mark(2016) “Between Caucasus and Caliphate: The Splintering of the North Caucasus Insurgency,” *Caucasus Survey*, Vol. 4, No. 3, pp. 194-217.
- Zhemukhov, Sufian(2018) “Outsiders and Locals: The Kremlin’s Policy of Appointing Governors in the North Caucasu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222, pp. 5-10.
- Zürcher, Christoph(2007) *The Post-Soviet Wars: Rebellion, Ethnic Conflict, and Nationhood in the Caucasu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Abstract**The Evolution of Violence in Chechnya and Its Relational Factors****Kim, Tae Y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violence has erupted and evolved in Chechnya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sub-state and non-state actors. The failure to forge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Boris Yeltsin and Dzhokhar Dudayev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early 1990s was a critical factor in the outbreak of the first Chechen war. After the first war when Chechnya became de facto independent, violence was stopped in and out of Chechnya, but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of Aslan Maskhadov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Chechnya and the resulting break-up of an attempt to build a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echnya led to the eruption of new violence, that is the second Chechen war. Vladimir Putin's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 war and the Chechenization policy in the early 2000s could be understood as the two different ways of a relational solution to the Chechen problem within the framework of hierarchical federal relations. With the Chechenization policy under way since the mid-late 2000s violence has declined inside Chechnya but has diffused and spread around Chechnya to the adjoining North Caucasus region. This new phase of the evolution of violence has proceeded from the deepening of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echnya based on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Vladimir Putin and Ramzan Kadyrov.

Key words: Russia, Chechnya, Russo-Chechen Relationship, Violence, North Caucasus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 태 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관심 연구 영역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민족주의, 민족분쟁, 이슬람, 도시 공간 등이다. 최근 연구 실적으로는 「분쟁 이후 도시에서 기억의 실행: 키르기스스탄 오쉬의 기념물을 중심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비교연구」, 「아스타나 도시풍경에 반영된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정체성 건설의 딜레마」 등이 있다.

Kim, Tae Yon

Lecturer at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uthor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at Moscow State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nationalism, ethnic conflicts, Islam and urban space in the post-Soviet region. His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include “The Exercise of Memory in a Post-Conflict City: Focusing on Monuments in Osh, Kyrgyzstan,”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bilization Potential for Radical Islamic Movements in Post-Soviet Kazakhstan and Kyrgyzstan,” “Dilemmas of Post-Soviet Kazakhstan’s Identity Construction Reflected in Astana’s Cityscape,” etc.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8. 9. 29
논문심사일:	2018. 10. 15 ~ 2018. 11. 3
심사완료일:	2018. 11. 4